

“부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서경 태

IAEA 핵물질 보장조치 사찰관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체제로부터 집사람에게로 메일이 도착했다.
“언니, 드디어 이름을 바꿨어.”

그 동안 여러 번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였는데, 번번이 반려되었다가 마침내 법원에서 허가가 난 것이었다.

못 부를 정도로 흉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항상 못마땅했던 체제로서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일을 해결한 것과 같은 기쁨을 느낀 것 같았다.

이름에 얽힌 사연

과거 여자 아이들의 이름에 일제 시대의 잔재인 ‘자’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의 이름을 대수روی 여기지 않았고, 또한 그런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었다.

이름과 관련하여 필자의 머릿속에는 아주 특이한 기억이 남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오기 전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같이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 중에 이름이 ‘음녀’인 직원이 있었다. 한자로 쓴다면 ‘淫女’이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다들 놀랐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딸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하고 분개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듣고 난 후에는 씩씩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연인즉, 이 여성 직원이 태어난 곳은 농촌 지역이었고, 과거 5, 60년대 농촌 지역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 이 여성 직원의 부모님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여성 직원이 태어났을 때, 딸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면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러 가서 그곳에 근무하는 면사무소 직원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면사무소 직원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여자 아이의 이름을 이와 같이 이상하게 지어 출생 신고를 마쳤다.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저지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었다.

그 사연을 들은 여러 직원들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정보를 주었고, 이후 소식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그 여성 직원은 아주 예쁜 이름으로 바꾸고, 바꾸어진 예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유교 문화에 젖어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집안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 이름에 항렬도 따지고 하여 이름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시절이 있었다.

이름난 작명가를 찾아 사주를 따지고, 항렬을 따져 이

름을 짓다보니, 우리들도 발음하기가 어려운 이름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남존여비 사상에 따라 남자에게만 국한되었고, 여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최근에는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쓰기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남녀 구분없이 우리말로 된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성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같이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영어식 작명과 한국 이름의 영어 표기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외국인들이 부를 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한글로 지은 예쁜 이름들이 제대로 불리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름, 꽃님, 하늘, 한결 등등 외국인들이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이름들이 많다. 이리다 보니 듣는 입장에서조차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부르는 입장에서서는 힘들어 하기도 하고 미안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습게도 한국에서는 ‘촌티’ 나는 이름으로 여겨지는 철수, 순이, 순자, 영이, 미자 등은 완벽하게 발음을 하며 기억도 잘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으려는 이름들이 국제 사회에서는 각광(?)을 받는 이름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영어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이다. 다니엘이니 제시카니 하며, 그 이름에 담긴 역사나 이야기들은 모른 채, 예쁜 이름을 선택해서 자기의 예명같이 사용하고 있다. 명함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도 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지어서 쓰는 데에 무어라 할 말은 없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영어식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고 모두가 개인적이고 남의 사생활

에는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완벽한 모습의 동양인이 영어식 이름을 쓰고 있을 때, 그것도 어눌한 영어를 구사할 때, 외국인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가 많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국적이 어디냐 등등을 물어보며, 너는 한국 이름이 없느냐, 너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느냐로까지 진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굳이 영어식 이름이 필요하다면, 이름을 선택할 때에 그 이름의 의미라던가, 그 이름을 쓰는 이유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외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만으로도 십여 분 정도의 대화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는 데에 있다.

지난 3월에 이곳에 근무하는 한국인 동료와 출장을 같이 다녀왔다. 그분과 필자는 성이 같은 서씨인데, 그분은 ‘SEO’로 쓰고, 필자는 ‘SUH’로 영문 이름을 쓴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세오’로 불려지고, 필자는 ‘수’ 또는 ‘슈’로 불려진다. 이리다 보니,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고, 여러번 연습을 시켜서 발음을 하도록 해도 “서”라고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한다.

각 나라에는 특이하게 발음하는 말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발음을 하면 구강의 형태와 성대 모양이 그 발음에 맞게 굳어져 다른 말을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들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외국말들이 있고, 또한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우리말도 생기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영어식 표현 방법을 표준화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와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호칭의 변천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도 평

장히 까다롭고 제약이 많다. 아직도 군대에서는 훈련을 할 때나 이동, 또는 회식할 때에 '여군 미스리' 라는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십대 초반 혈기 왕성하던 시절, 금욕을 강요당하는 군대에서 막연하게나마 여성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기억이 난다.

'미스' 나 '미세스'와 같은 여성의 결혼 여부를 알려주는 영어의 단어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직업과 관련하여 비하되어 불리어지던 때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미스'라는 단어는 미혼 여성에 대한 마땅한 호칭이 없던 시절(물론 지금도 적절한 호칭은 없다)에 아가씨라는 말과 더불어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거부감을 불러 일으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이름에다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러한 호칭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수명이 연장되고 노후 생활의 환경이 바뀌면 나이를 먹고도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그때에도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아무개 씨라고 불렀다가 속된 말로 '씨가지 없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거나 앓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유교 문화에 젖어있는 필자의 우려일 수도 있다. 현재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익숙한 세대는 그때가 되더라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못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장님, 사모님, 부인님 ...

중년 남성에 대한 호칭에도 이야기거리가 많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다. 그 사람의 직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땅히 부를만한 호칭이 없으니, 다들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얼마나 불렀던지 노래까지도 생겼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장도 사장님, 조그만 가게의 주인도 사장님, 식당 주인도 사장님, 실업자도 사장님, 모든 중년 남

성이 사장님으로 불렸다. 하지만 사장이라고 모두 같은 사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큰 기업의 사장은 회장님이 되었다. 요사이엔 CEO로 불리어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 중년 남성들에게 많이 불리어지는 호칭은 사장님인 것 같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나 인도, 파키스탄, 터키같은 곳을 다녀보면, 시장에서 호객꾼들이 슬며시 다가와, '사장님, 좋은 물건 있는데 들어와 보세요.' 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이 많았던 호칭은 중년 여성을 부를 때 썼던 '사모님'이 아닌가 싶다.

결혼을 하여 아이가 있는 중년 여성을 부를 때, 아주머니나 아줌마, 또는 누구 엄마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중년 여성들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던 시절에, 사장님이란 호칭에 관한 우리 사회가 유독 사모님이란 말에 대해 그 어원까지 따져가며 호칭 제대로 쓰기 운동(?)을 벌인 것이 이 삼십여 년 전의 일이다.

물론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이었지만, 사모님이란 호칭을 쓰지 말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마땅한 대체 호칭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도 많은 곳에서 중년 여성들이 사모님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지금은 은퇴를 하여 집으로 돌아갔지만, 몇 년 전까지 필자의 부서에 복한 사람이 같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루는 이 분이 "서 선생, 부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집사람의 안부를 물어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북한에서는 결혼한 여자를 부인님이라고 높여 부르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인님이란 호칭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다. 남의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부인님이라는 호칭. 우리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국가보안법에 걸리나? 